

“기업 유치가 통합 성패...투자·일자리, 최우선 과제”

광주경총·상의 등 경제계, 통합특별시 출범 한목소리

AI·에너지·모빌리티 중심 전략...청년 정주여건 주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지역 경제계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통합특별시의 성공 여부는 결국 기업 투자 확대와 청년 인재 정착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다.

광주경총·상의총협회(회장 양진석)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합특별시의 확대된 도시 경쟁력을 실질적인 경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업 유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산업을 견인할 앵커기업과 첨단 미래 산업 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부지 제공, 투자 인프라 구축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모빌리티, 가전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경쟁력 강화 없이는 통합특별시 출범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청년 인재 유출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광주경총은 기업 유치와 연계한 고용 인센티브 확대, 주거와 문화 등 정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산업 현장과 교육 현장을 연결하는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직업계고와 기업 간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과 경제단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미래산업을 이끌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도 이날 발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바란다’ 자료를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이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에 머물러

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광주와 전남이 생활·경제·산업·문화 전반에서 오랜 기간 공동체를 형성해 온 만큼 산업과 인프라, 인재와 자원을 하나로 연결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AI와 에너지,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합특별시의 핵심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과 투자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이울러 공공화 이전 문제 해결과 광역교통망 확충, 안정적인 전력 공급체계 구축 등을 통합특별시

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꼽았다.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기반시설 확보가 이뤄져야 대규모 투자 유치와 산업 육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지역 경제계는 통합특별시 출범이 행정구역 통합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은 AI와 에너지, 미래형 모빌리티 등 국가 전략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수도권과 비교하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 정책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삼성전자, 에어컨에 포장재 재활용 신소재 적용

가전제품 포장용 스티로폼 수거 UL 솔루션즈 ‘ECV 인증’ 획득

삼성전자가 가전제품 포장용 스티로폼을 재활용한 신소재를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내장재에 적용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신소재가 글로벌 인증기관 UL 솔루션즈로부터 ECV(Environmental Claims Validations)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ECV 인증’은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의 사용률이나 유해 물질 함유율 등 기업이 주장하는 제품의 환경성이 사실인지 검증해 부여된다.

인증 절차는 재활용 소재 함유율에 대한 제조 공정 심사와 전문 엔지니어 검증 등을 통해 엄격하게 진행된다.

삼성전자는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 설치 후 남은 포장용 스티로폼을 수거한 뒤 선별·제조 공정을 거쳐 기존 소재와 동일한 품질의 플라스틱 혼합 신소재로 재탄생시켰다.

포장용 스티로폼은 오염도가 낮아 냄새와 유해 물질이 적고, 재활용 소재 활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런 신소재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에어컨과 ‘인피니트 AI 공기청정기’ 내장재에 적용됐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재활용 소재 함유율 10%



페스티로폼 재활용 신소재가 적용된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에어컨 조립 모습.

에 대한 ECV 인증을 받았다.

삼성전자가 올해에 재활용 예정인 페스티로폼은 총 165톤으로 부피로 환산하면 약 5500㎡에 달한다. 이는 축구장 전체 면적을 약 77cm 높이로 채울 수 있는 양이다.

삼성전자는 환경에 끼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활용 소재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폐유리를 재활용한 복합 섬유 소

재를 ‘비스포크 AI 콤보’ 일체형 세탁건조기 외부 세탁조에 적용해 UL 솔루션즈로부터 ECV 인증을 획득했다.

이외에도 폐식용유를 재활용한 소재를 냉장고 수납장에 적용하는 등 새로운 재활용 소재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폐세탁기 통을 재활용한 소재도 에어컨 등 가전 제품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

이다.

삼성전자 DA사업부 문준호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다양한 재활용 소재를 개발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제품 전반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소재 개발을 통해 환경 부담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한국인 최다 사용 AI ‘챗GPT’ 검색·메신저는 네이버·카톡

2024년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매출이 16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이용자들은 검색엔 네이버, 메신저는 카카오톡,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챗GPT를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부가통신 서비스 매출은 502.9조원으로 전년 대비 15.3% 성장했다. 이 중 전자상거래·앱마켓·소셜 미디어 등 공급·수요 양면시장을 중계하는 디지털플랫폼 매출은 161.5조원으로 전년 대비 5.4% 늘어 부가통신 전체 매출의 32.1%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자본금 1억원 미만·휴폐업 사업자를 제외한 6049개 부가통신사업자를 모집단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총 1451개사가 응답했다.

사업자 유형은 음식 배달과 여행·숙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유형이 30.9%로 가장 많았고, 전자상거래 등 재화 거래 유형(27.1%), 검색·게임 등 콘텐츠 제공 유형(15.5%)이 뒤를 이었다.

응답 사업자의 62.2%는 AI·빅데이터·사이버보안 순으로 디지털 신기술을 1개 이상 활용하고 있었다.

사업 추진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최신 기술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산업인증을 위한 정부 지원 부족, 인프라 비용 부담 등이 꼽혔다.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는 마케팅·유통 어려움, 현지화 및 법·제도 정보 획득의 한계, 지인 인력 확보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행태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69세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3개월(2025년 10~12월) 간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검색(98.7%), 메신저(98.5%), 플레이스·지도(96.8%), 전자상거래(95.6%), 동영상 공유(92.7%)가 90% 이상의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생성형 AI 이용률은 78.1%로 다른 유형보다 낮았지만 20대의 경우 92.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메일 이용률은 빈도는 메신저(91.3%), 검색(85.8%), 동영상 공유(69.5%) 순으로 높았으며, 해당 플랫폼들이 일상에 깊이 자리 잡았음을 보여줬다.

유형별 1위 플랫폼은 검색 부문에서 네이버(67.5%), 메신저 부문에서 카카오톡(92.5%), SNS 부문에서 인스타그램(35.9%),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쿠팡(53.6%)이 꼽혔다.

쿠팡은 빠른 배송을, 네이버는 가격 합리성과 연계 서비스를 강점으로 경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멤버십 구독 전후 이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쿠팡과 네이버 멤버십 모두 고착 효과 가능성이 확인됐다. 연합뉴스

부영그룹,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 ‘눈길’

병무청과 협약·순천부영CC 등 레저시설 할인 제공

부영그룹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확대에 나섰다.

부영그룹은 최근 서울 중구 부영그룹 본사에서 병무청과 ‘병역명문가 대상 레저시설 이용 우대 혜택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준근 부영그룹 회장과 홍소영 병무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직계비속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병역명문가는 부영그룹이 운영하는 전국 6개 레저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시설은 무주덕유산리조트와 태백 오투리조트, 제주부영호텔&리조트, 제주부영CC, 더클래식CC, 순천부영CC 등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기아, HMGMA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생산

미국 시장 SUV 생산·판매 확대...전체 라인업 전동화 가속

기아는 2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엘라블에 위치한 HMGMA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생산 개시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스포츠지 하이브리드는 HMGMA에서 생산되는 최초의 기아 모델이자 첫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그를 전제로는 현대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에 이어 세 번째 양산 차종이다.

기념행사에는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켈프, 기아 북미권역본부장 및 미국판매법인장 윤승규 사장, HMGMA 법인장 허태양 전무, 이준호 애틀랜타 총영사, HMGMA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HMGMA에서 생산된 첫 번째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자율이동로봇에 실려 무대로 등장. HMGMA의 고도화된 자동화 역량을 상징적으로 선보였다.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생산 라인업 합류로 HMGMA는 전기차·하이브리드를 아우르는 전동화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됐다.

또 기아는 미국 시장을 위한 SUV 생산 및 판매 규모를 확대하고 전체 라인업의 전동화를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기아는 기존 웨스트포인트 지역 기아 조지아 공장장과 HMGMA의 생산 역량을 더해 2030년까지 연간 최대 55만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켈프는 “2025년 생산 개시 이후 HMGMA는 조지아 출신 인재들로 구성된 우수한 팀을 구축했으며 이제 전국 고객을 위한 또 하나의 혁신적인 차량을 생산하게 됐다”며 “이번 공동의 성공은 기아 미국법인, HMGMA, 지역 사회, 그리고 조지아주 시민들과의 검증된 파트너

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아 북미권역본부장 및 미국판매법인장 윤승규 사장은 “메타플랜트는 기아가 조지아주에서 진행한 두 번째 대규모 투자로, 기아가 자동차 산업 중심지로서 조지아주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지난해 상품성 개선 모델을 공개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기아의 베스트셀링 모델로, 메타플랜트 생산을 통해 기아의 미국 내 성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HMGMA 법인장 허태양 전무는 “이번 성과는 세계적 수준의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미래 모빌리티 구현을 본격화하는 조지아주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기아, HMGMA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생산

미국 시장 SUV 생산·판매 확대...전체 라인업 전동화 가속

기아는 2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엘라블에 위치한 HMGMA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생산 개시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HMGMA 법인장 허태양 전무, 기아 북미권역본부장 및 미국판매법인장 윤승규 사장,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켈프, 이준호 애틀랜타 총영사.